



## 2006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업 경쟁력 척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06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지난달 20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해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안, 관련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선진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글 박현수 기자 사진 이해성 기자

올해 4회째를 맞이한 2006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가 '성공적인 IT 거버넌스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0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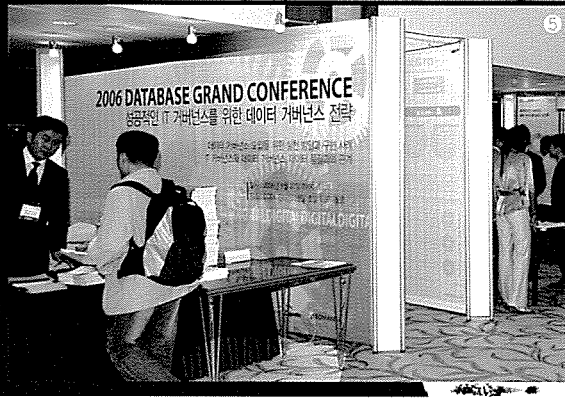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 연방정부 데이터 아키텍처 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에이커(Suzanne Acar), 미국 사이버(CIBER)사의 마샤 덴버(Martha Dember) 전문 컨설턴트 등 해외 전문가들이 초청돼 데이터 거버넌스의 최신 동향과 사례를 발표했다.

개회사에서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이사는 “고품질 데이터가 기업 IT운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들은 데이터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IT 거버넌스가 기업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전무이사는 덧붙여 본 컨퍼런스를 통해 데이터 품질 및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개회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션에



- ① IBM, 아이티플러스, 위세아이텍 등 업체들이 자사 부스에서 관련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 ② 개최사를 하고 있는 원영희 한국DB진흥센터 전무이사
- ③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 연방정부 데이터 아키텍처 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에이커가 참석했다.
- ④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강연한 마사 린버 컨설턴트
- ⑤ 2006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에는 1,400여 명이 참석,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 수잔 에이커 위원장은 미국 전자정부의 데이터 참조모델 개발과 구현 사례를, 마사 린버 컨설턴트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강연을 가졌다.

에이커 위원장은 “데이터레퍼런스모델(이하 DRM)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거쳐 범용적인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는 모델로 이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성공적인 ITA를 위해서 DRM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사 린버 컨설턴트는 데이터 거버넌스 방법론 강연에서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 데이터 거버넌스는 당면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이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린버 컨설턴트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이 기업내 데이터를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절차나 감독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법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명재호 엔코아컨설팅 이사는 ‘시스템 거버넌스 기반의 메타데이터 통합 관리’를, 정상덕 한국IBM 부장은 ‘데이터 거버넌스하의 데이터 품질 관리 필요성 및 도입 방향’을, 양성모 KTF 차장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전사 메타데이터 시스템’ 등 기업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를 가졌다.

명 이사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도 대형 시스템을 중심으로 메타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최근에 구축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에는 메타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거버넌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양성모 KTF 품질관리센터 차장은 “KTF의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사 데이터 표

준화를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 뿐 아니라, 개발 생산성 향상, 체계적인 데이터/애플리케이션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강연장 밖에서는 아이티플러스, 인프라소프트, IBM, 위세아이텍 등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각각 개별 부스를 마련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필요한 정보와 솔루션을 전시해, 폭 넓은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인증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10월부터 시작될 품질관리 인증 사업에 대한 제반 절차와 방법 등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